

투데이 칼럼

북한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下>

중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진정한 패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세력을 제압하거나 그와 동등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는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핵무기의 중동지역 확산을 시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북한 핵무장을 묵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북핵을 절대 불용한다고 보지만 북한은 이미 수십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나 한국등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를 사용할 운반수단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수년이 되었으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무슨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이는 곧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 핵무기를 현실적으로는 묵인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르지 않지 않은가.

미국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적,군사적 수단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등 동북아지역에 여러 위해 요인이 과급될 우려 때문에 주저한다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렇게까지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에서 한발 더 나가 미중 양국 모두가 북핵 상황을 자국 외교에 유리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원시적 핵무기를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이를 수출하는 등의 확산 조치만 하지 않는다면 미중 양국로서는 북핵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94년 미북 북핵협상시 우리는 이에 참여하기도 못하면서 북한에 건설해 주기

최병호 주 노르웨이 대사, LA 총영사 역임



로 미,북간에 합의된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 입고 받았던 쓰라린 경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 한국내 일각에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핵보유 5개국인 핵무기 확산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왜 비핵국인 한국이 그 비용을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것도 일본과는 달리 미국에 의해 용인되지 않는 처지인데 왜 북한 핵무기 개발 방지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정치권이나 외교력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에도 간절하였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다

시 최첨단에 나서서 유엔제재대상도 아닌 북한의 개성공단까지 자진해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외교적으로는 유일한 대북 협상카드를 거져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한심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미,중관계가 어떠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지,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일시적으로 미국에 잘 보이려는 무의식적인 사대적 사고에서 나온 조치가 아닌지 씁쓸한 기분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강대국들임을 우리의 위정자들이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미국의 국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국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트럼프를 위한 지도자라고 하였다니 모처럼 남북한이 그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끝>

사설

전북농업, 산학연이 함께 해야

전북 농업의 앞날을 생각해 하는 요즘이다. 농민들을 위해 희망을 찾아보려는 마음에서이다. 그래서 저번에 언급했던 바이지만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게 있다. 산학연이 함께 전북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말이다. 그래서 여기 주문하고픈 게 있다. 전북도가 나서서 공공기관 초청 세미나를 자주 열고 산자를 독려했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제 익산의 식품러스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도 그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발한 추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산학연 삼자 모임 추진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런 세미나들은 주목을 받을 못했다. 농업에 대한 열기가 식고 있는 작금이라서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전북도의 관계자들이 그때 농업 관련 산업에 주목한 것은 전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책 사업으로 새만금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탄소법 제정으로

탄소산업이 새로운 대형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산업의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백년 먹거리' 일자리인 만큼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터이다. 그러므로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 못지 않게 농업분야도 계속해서 구상과 계획을 더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브레인들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북도가 말한 삼각농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자못 클 터이다.

전북도는 과거에 식품 산업 관련 일꾼들과 농생명 관련 일꾼들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을 여기 또 하거나 우리 전북 지역은 전통적인 농도이다. 본보는 사실을 통해서 농업을 등한히 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에 산학연 삼자가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돼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 기해야

지금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이다.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로 날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만큼 미세 먼지가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 지역도 지난달 26일 이후 여름 날게 계속되고 있는 미세 먼지 때문에 하늘이 은몽 뿌연게 흐린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미세먼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경각심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비가 오면 관창아질 터인데 하는 느낌으로 대수가 아니라 늘 늘 대해서는 안 된다. 도내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화면이나 사진을 보면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전주만해도 짙은 황사나 안개가 낀 것 같이 흐리니 말이다. 대기 오염이 이렇게 심하니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폭염도 예의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노약자들의 건강이 열려된다. 특히 독거 노인들이 걱정이 된다. 이제 6월 상순인데 이렇게 덥다면 7월이나 8월에는 '찜통더위'며 '불볕더위'가 건강을 더 무섭게 위협할 게 뻔하다. 그러므로 당국은 미리 잘 조직해서 노약자들의 건강 안전 사고를 미연에 막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어야겠다. 그게 바로 지혜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며 때 이른 더위가 닥친 것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겠다. 그게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것이니 말이다. 각 지자체와 보건 당국도 지금 할 일이 있다. 독거 노약자들의 형편을 살펴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미리 도모해야 한다. 그에 대해 농장을 부리면 곤란하다. 더위가 극심한 7월과 8월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때가 늦다. 그러므로 건강 문제가 있는 병약자들의 형편을 지금부터 파악해 두어야겠다.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독자제언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뿌리뽑길

최근 SNS에서 블랙 닷 (black dot) 캠페인이 화제다.

블랙 닷은 육체적, 정신적, 성적 등의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요청 할 수 없을 때 손바닥에 검은 점을 찍어서 비밀스런 방식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1주일 만에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49명의 피해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데 성공한 성과를 기록한 캠페인이자이다.

세계적으로 블랙 닷 캠페인이 연일 화제가 되어가고 있을 만큼 가정폭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정폭력이란 가족폭력, 근친폭력, 준비폭력등과 같은 말로, 가족구성원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건수는 2013년 16만 272건에서 2015년 22만 7727건으로 집계됐는데, 신고 건수만 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약 8%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정폭력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때문인지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또 다른 범죄를 낳고 가정 대대로 대물림을 낳는 현상을 보인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형자 480명을 조사한 결과, 살인범과 성폭력범 3명 가운데 2명이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나와,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신희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문지마범죄, 협력치안으로 예방을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모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학생이 이유 없이 화가 난다고 모르는 20대 여성의 머리 부위를 벽들로 내리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4월에는 광주 어등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어등산 일대를 배회하던 중 팔각정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등산객을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아니냐"며 살해한 일도 발생했다. 위 사건들은 이른바 전형적인 "문지마 범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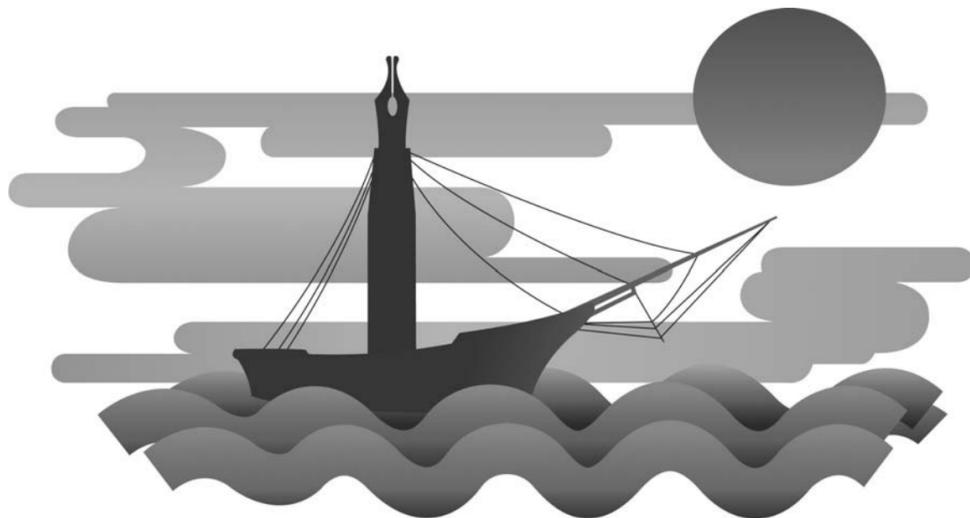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이제 문지마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더이상 낡은 일이 아니다. 나 또는 가족이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발생한 문지마 범죄는 매년 50건을 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문지마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문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회시스템으로 보고 해결책과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된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는 협력치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예로 각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등 다양한 지역 협력단체와 끊임없는 협력과 유대를 하며 지역 치안에 힘쓰고 있다. 김주신이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